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서당교회 담임

나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하면서 첫 번째 교회를 옮긴 것을 시작해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10번째 교회이니 총 9번을 옮긴 셈이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해서 옮긴 것 외에는 모두 지역지를 옮긴 것이지만 9번을 옮긴 것은 맞는 말이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나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교회로 오는 수 많은 사람들의 앞 모습과 뒷 모습을 보아왔다. 모두 갈등과 걱정, 그리고 기다림과 설렘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실면서 교회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것은 자신

습을 본 나치 군인들은 마침내 그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대할 수가 있었고 필요하면 스스로 없애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쉽게 죽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한 컵의 물을 공급받은 사람 중에 반 컵은 마시고 나머지는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 부족하지만 볼라지 닷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와 자존감을 지켰고 그들은 대부분 살아 남았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죽고 어떤 사람을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태도, 태도에 달려있다. 일어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 태도는 일어난 상황의 해석의 결과이다. 그래서 일어난 상황과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능력인 것이다.

감사와 불평은 시각과 해석의 차이이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불평 할 만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고 말했다. 그 래서 해석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배우인 모건 프리먼(M. Freeman, 1937년생)은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한 미국의 국민배우이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걸출하다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 씀인가요?" "그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라. 걸출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 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와우~~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말 앞에서 보 인 프리먼의 해석의 능력은 감탄할 정도이다. 그 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년 1월 11일 ~ 1910년 8월 26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해석을 마음대로 바 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나보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교 회가 외치는 표어 중의 하나는 "나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오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이다. 물론 무슨 일을 맡으면 잘해야 한다. 열 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오래하는 것이다. 잘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오래 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 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려면 끈이야 할 바위가 있다. 버텨야 할 시간도 있다. 날아야 할 신이 있 고 견뎌야 할 강도 있고 풀어야 할 무릎과 흠려야 할 눈물이 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 뜻대로 안된다고, 지금 기분이 상했다고 던져버리고 차버리고 떠나버리면 내 몫으로 정해진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래 오래 교회를 다니려면”

과 기쁨을 넘어 교회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어떻게 하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오래 오래 다 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한다.

빅터 프랭크(Viktor Emil Frankl)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고 신경학자이며 철학자이다. 1905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교에서 의학박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은 가족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 끌려가서 3년 동안 네 군데의 수용소를 거 치며 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 살아남았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본인의 '체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남겼다. 이 책에 서 빅터는 인생을 체념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아픔에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끝까지 아껴두었던 담배를 피운다. 셋째, 그 자리에서 배설을 한다. 그리고 며칠 후 사망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았을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그때까지 남아 있던 나치 군의 양심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치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만든 화장실을 모두 없애고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화장실은 하루에 딱 한 번만 가도록 허락 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잘고 졸다 가 드디어 타치는 대로 배변을 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밧줄에 배변을 하기도 했다. 누가봐도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목욕을 카닝 세수마저 하지 못하도록 소량의 물만 주었다. 드디어 유대인은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사 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모

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 씀인가요?" "그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라. 걸출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 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와우~~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말 앞에서 보 인 프리먼의 해석의 능력은 감탄할 정도이다. 그 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년 1월 11일 ~ 1910년 8월 26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해석을 마음대로 바 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나보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교 회가 외치는 표어 중의 하나는 "나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오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이다. 물론 무슨 일을 맡으면 잘해야 한다. 열 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오래하는 것이다. 잘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오래 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 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려면 끈이야 할 바위가 있다. 버텨야 할 시간도 있다. 날아야 할 신이 있 고 견뎌야 할 강도 있고 풀어야 할 무릎과 흠려야 할 눈물이 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 뜻대로 안된다고, 지금 기분이 상했다고 던져버리고 차버리고 떠나버리면 내 몫으로 정해진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며칠 전 정통기 고교야구 경기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 습니다. 6·2로 앞서던 후반, 한 팀의 디 그아웃에서 상대를 향해 "가야지 가야 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가 반박해 터져 나왔습니다. 5·18 과 광주를, 승패와는 아무 상관 없는 한 도시의 비극을 조롱의 도구로 삼은 것 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는

두고 국가 권력으로 사기업을 압박하고 불매를 조장하는 것에는 왜 한마디도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몰타기라고 생 각합니다. 잘못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군 형 잡힌 듯 보이지만, 곧바로 질문 자체 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운은 '경기장에서 어린 선수 들이 한 도시의 비극을 조롱해도 되는 가'입니다. 스타벅스를 불러낸 사회적 대응이 과했는지 아닌지는 그것대로 따 로 논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 가지를 한자리에 포개어 "지것은 왜 말 하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 정작 답해야 할 질문은 사라집니다. 그 논법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부정을 동시에 지적하지

이 아닙니다. 회개(메타노이아)는 방향 을 바꾸는 일이며, 곧 잘못 앞에서 도망 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 라, 자기 실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 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 다음 세대에게 정작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지부조화나 감수성 은 허무아함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누군 가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는 문화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결국 무매망이 되어 돌아 오고 소통의 단절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어른의 태도를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가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실제로 배우는 것은 우리 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롱은 잠깐 통쾌하지만 끝내 무매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용기는 처음엔 부끄럽고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되살 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 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태도를 물려주고 있는가일 것입니 다.



진일교 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담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4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환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 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8~29)

영광의 하나님!

모든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기 힘과 자기 열심, 자기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전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어 일하시는 주님 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 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편집과 함께 가져 인쇄한다(편집권 편집권 / 박은주 지음)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그리스도는 십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킨다!

"YFC"는 Youth For Christ 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 라는 뜻을 가진 국제적인 초교파 청소년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고, 훈련된 제자로 지역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비전입니다.

이 일은 세계 127개국에서, 한국에서는 13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1972년, 당시 수퍼마켓 교사이던 송준용 장로 에 의해 시작 되어,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 제 도자 40명의 이사와 50여명의 후원 회원과 초교파로 10개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원식 대표

남택률 이사장

- 주요 사역
- 토요 모임(매주 11시)
 - 청소년 영한 성경 암송대회
 - 국제청소년캠프 및 단기선교
 - 청소년 지역 지도자 세미나
 - 학교클럽 활동(CLC)
 -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연2회)
 - 청소년 Summer Camp
 - 청소년 상담



(사단법인)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YFC)

우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번지(4층) 전화 (062)369-7298 간사 010-9694-7298
후원계좌 (광주은행) 016-107-312115 (농협) 355-0369-7298-13 예금주 한국십대선교회 광주지구



광주학원복음화협의회

Gwangju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광주학원복음화협의회는 이 사회의 물 근원인 대학을 복음화하고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학생선교단체가 협력하여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연합입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정치적 역사적 격변기였던 80년대, 대학가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침체된 청년기 독학생운동을 보면서, 대학을 살리고 복음으로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키자 할 사명에 대한 공감대가 교회 및 선교단체 지도자들간에 형성되어, 1989년 가을에 서울에서부터 조직되었고 광주는 1999년 가을에 조직되었으며 현재 광주지역 42개교회, 14개 선교단체와 4개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 목표 및 방향
- 400여개 대학의 대학생의 복음화와 교회의 허리인 청년대학부의 활성화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와 학생선교단체 가 가진 역량을 총 집결하여, 선교지로서의 대학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회의 학생선교단체 지원을 활성화 하며, 학원복음화전략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대표회장 김승원 목사(신창교회)
- 공동대표 김성원목사(중흥교회), 강정원목사(만남의교회), 권점용목사(백운교회), 최용희 목사(서림교회), 김성진목사(CCC), 김정화목사(DFC)
- 중앙위원 이상복목사(광주동명교회), 임춘수목사(광주신수교회), 정 준목사(신안교회), 조성용목사(광주양림교회), 김건태목사(광주영락교회), 이재환 목사(광주성지교회), 김우철목사(ESF), 김대환목사(JDM), 이정아목사(SCE)
- 사무총장 김광중 목사(통하는교회), 총무 김영탄 목사(점단창교회), 김인환목사(DSM)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291번지 ☎교회 062-953-5374
H·P. 010-4604-6076 http://www.gjcen.org